

토라의 경제관과 경제학적 함의*

Torah's Economic Perspective and Its Implication of Economics

조규봉 (Kyu Bong Cho)**

ABSTRACT

In our time when inequality is deepening, this study draws Torah's economic perspective and looks for a connection point with normative economics in order to examine whether the biblical economic view is still effective in analyzing and solving problems of inequality. In the light of the realization of the Kingdom of God, Sabbath, Jubilee, consideration for economically underprivileged are identified as the Torah's economic perspective. The three Torah items may restrain humans from being captivated to unlimited proliferation of greed and proclaim God as the ultimate owner of capitals for production more focusing on restoring the relationship in the community rather than on maximizing its production. In terms of the social relationship, Torah's economic view can be thought of in conjunction with Sen's concept of poverty. As Sen regards poverty as a persistent deprivation of capabilities in the relationships, economically underprivileged in Torah such as slaves, orphans, widows, and sojourners are exactly the categories of poverty defined by Sen. This conceptual convergence can provide a meaningful basis for discussing who are slaves, orphans, widows, and sojourners, and how to implement the social supports that Torah has stressed about them.

Key words : Torah, normative economics, poverty, capability

* 2020년 07월 06일 접수, 09월 09일 최종수정, 09월 09일 게재확정

** 한동대학교 경영경제학부 교수 (Handong Global University),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558, kbcho1@handong.edu

1. 서론

근래 한국을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소득과 부(wealth)의 불평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06년 이후로 소득 기준 상위 10%가 국가 전체 소득의 40% 이상, 순자산은 상위 1%가 국가 전체의 25% 정도를 점유하는 등 양극화의 흐름이 견고해지는 추세다. 이러한 양극화의 고착은 사회경제적 약자층이 경제적으로 자활할 수 있는 토대를 점차 상실하여 신분 상승의 가능성을 낮출 우려가 크다. 기존 경제학계에서도 이에 대한 원인과 대처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기술의 변화·발전이 교육 시스템이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나 노동 소득에 대한 평등 관념, 세제(tax policy) 등 분배와 관련된 사회규범 문제를 다룬 연구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은 사회적 협의를 통해 제도화되기 어렵고 기초적인 수준에서 제도화가 이루어지더라도 불평등 문제 해소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최근 한국 기독교계에서도 불평등 심화 문제에 대해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져 왔다. 일부에서는 현대 사회의 경제적 양극화의 근본 원인으로 신자유주의를 지목하면서 신자유주의 체제가 성경적 가치와 대립하는 지점에 대한 신학적·윤리학적 접근을 시도해 왔다(박승인, 2015; 2019; 이봉석, 2018; 광호철, 2016; 김명배, 2012; 장윤재, 2005). 다른 한편에서는 부의 편중, 특히 한국 사회에서 논쟁의 대상인 토지 등 부동산과 관련하여 희년 정신을 현재화하는 토지 정의 실현 주장이 꾸준히 대두되어 왔다(조혜신, 2018; 정중호, 2014; 김근주 외, 2012; Torrey, 2002). 이러한 연구들은 성경적 관점을 우리가 처한 현실의 문제 속에서 해석하고 구현해 보려는 시도로 삶의 현실과 신앙의 분리를 가져온 이원론적 입장을 극복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노력으로 읽힌다.

하지만 우리가 직면한 불평등 문제에 대하여 신학적·윤리학적 비판이나 희년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 정의 실현에 대한 논의와 달리 성경적 경제관과 경제학의 연결점을 찾아 분석하려는 시도는 그리 많지 않다. 사실 현대 경제학은 선형적인 가치에 대한 논증보다는 엄밀한 모형을 바탕으로 수학·통계적 방식을 활용하여 검증 가능한 논의 체계를 지향하는 실증경제학(positive economics)이 주류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과 관련된 선형적, 윤리적 관점과 조화를 이루기가 쉽지는 않다. 그렇다고 경제학 연구에서 선형적, 윤리적 가치를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스미스(Adam Smith)를 비롯한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소위 규범경제학(normative economics)으로 불리는 영역을 넘어 윤리학과 연관된 주제까지 다루었고, 근래에도 센(Amartya Sen)과 같은 경제학자들은 규범경제학과 연관된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센은 현대 경제학에서 실증적인 방법론이 강화됨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한 윤리적 성찰을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비판하면서 규범경제학과 연관된 연구를 확장해 왔다(Sen, 1988). 따라서 불평등 문제와 관련하여 규범경제학에서 논의되어 온 주요 주제와 성경적 경제관과의 접점을 찾아

보고자 하는 시도는 성경적 경제관에 대한 논의를 확장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도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먼저 현대 사회가 직면한 경제적 불평등 양상을 분석한 후 최근 경제학계에서 제시하는 대처방안과 그 한계를 짚어보고 성경적 경제관이 현대 사회에도 여전히 의미가 있음을 논하였다. 그런 다음 성경적 경제관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성경적 경제관과 현대 규범경제학의 접점을 찾아보기 위해 센이 제시한 새로운 빈곤 개념을 설명한 후 센의 빈곤에 대한 관점이 성경적 경제관과는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분석해 보았다.

우선 성경에서 나타난 경제관을 찾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구약성경의 토라(Torah, 모세오경)를 주된 텍스트로 삼았다. 토라는 하나님 나라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서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성경적 경제관을 조망할 수 있는 훌륭한 텍스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요약해 보자면 크게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 그리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형성이라 할 수 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토라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경제관을 본 고에서는 안식일에서 희년으로 이어지는 율법 조항과 경제적 약자층에 배한 배려 조항에서 찾았다. 안식일과 희년 조항은 끊임없이 증식하는 인간 탐욕에 대한 경계 장치 역할을 함과 동시에 생산수단의 궁극적 소유주가 여호와 하나님임을 명시함으로써 경제 활동에 있어 인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있다.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여타 구성원에게 자신의 소유를 무한정 주장하지 않음으로써 경제적 약자계층이 가난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고통 받지 않도록 다양한 사회적 안전장치를 두고 있기도 하다. 이는 토라에서 추구하는 사회에서는 물질적 생산의 극대화보다는 공동체 속에서 상호 관계의 정상화에 더 큰 비중을 부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토라에서 자주 등장하는 노예, 고아와 과부, 거류민은 그러한 약자계층을 대표하는 사람들로서 단순히 소득이나 부를 갖지 못한 것에 더하여 경제적으로 회복의 가능성이 희박한 계층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토라의 경제관이 강조하는 사회경제적 ‘되돌려놓음(reset)’은 바로 사회경제적 약자층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였던 셈이다. 토라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을 위한 지침이기 때문에 이를 문자 그대로 현대 사회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사회적 약자층을 향한 회복의 메시지가 가지는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한 첫 단계가 현대 사회의 노예, 고아와 과부, 거류민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보편적 경제학의 언어로 풀어내는 것이다. 그 이후에 그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를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한 방안이 구체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 사회의 경제적 약자층을 정의하기 위해 센이 제시한 빈곤의 관점을 토라의 경제관과 연결하여 살펴보았다. 센은 빈곤을 단순히 소득이 낮은 수준으로 보지 않고 상호 관계 속에서 개인의 기본적인 역량(capabilities)의 지속적인 상실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물질적 생산의 극대화보다 공동체 속에서 상호 관계의 정상화에 더 큰 비중을 두는 토라의 경제관과 연관성이 있다. 더욱이 토라의

경제관에서 사회적 관심과 보호의 대상인 노예, 고아와 과부, 거류민은 셴이 말한 지속적 역량 상실에 직면한 경제적 약자층과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셴이 제시한 빈곤의 관점은 현대 사회의 노예, 고아와 과부, 거류민이 누구인지 설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토라의 경제관을 바탕으로 현대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풀어내는 귀중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불평등 문제에 직면한 현대 사회에 토라의 경제관이 여전히 유효함을 설명하고 셴이 제시한 빈곤 개념과의 연관성을 기반으로 향후 경제적 양극화를 감소시키는 방안으로써 토라 경제관의 가능성을 새롭게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논문은 서론 이후 다음과 같은 구성을 취하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경제학적 대처 노력과 한계를 짚어볼 것이다. 이어서 토라의 관점에서 본 경제관을 하나님 나라의 구현 측면에서 안식일, 희년 조항 및 경제적 약자층 배려 조항을 중심으로 설명할 것이다. 뒤이어 셴의 빈곤에 대한 관점을 소개하고 이를 토라의 경제관과 연결하여 비교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가지는 의미와 한계를 밝힌 후 후속 과제를 제시하면서 본 논문을 결론 짓고자 한다.

II. 경제적 불평등의 양상

먼저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양상이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빈곤선(poverty line)을 기준으로 산정한 절대 빈곤층¹의 비율은 1990년 36% 수준에서 2015년 10% 수준까지 꾸준히 감소해 왔다. 하지만 절대 빈곤층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소득(income)과 부(wealth)의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최근 프랑스의 경제학자 피케티는 광범위한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과 부의 불평등 상황이 심각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경제학계에 큰 논쟁을 불러오기도 했다(Piketty, 2017; Piketty and Saez,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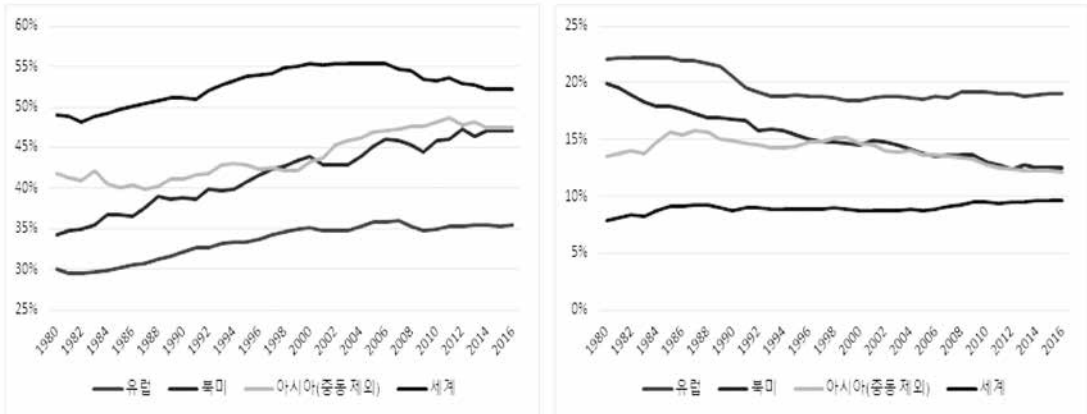
본 논문에서는 『세계 불평등 데이터베이스(World Inequality Database)』에서 공개한 자료를 기준으로 소득과 부의 양극화 추세가 실제로 어떠한지 국제 상황과 국내 상황을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분석을 위해 소득은 개인별 세전 소득(pre-tax income)²을, 순자산은 개인별 금융 및 비금융 자산을 합산한 후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net personal wealth)을 적용하였다.

1) 보통 성인이 1년 동안 소비하는 모든 필수 자원의 총비용을 구하여 추정하게 되는데, 글로벌 기준(international poverty line)은 2015년 10월 기준, 'USD 1.9/일'이다. (출처: World Bank)

2) 세전 소득은 임금 등 노동 관련 소득, 이자·배당금 등 자본 관련 소득을 납세 이전 기준으로 합산한 개념이다. 따라서 납세 이후에 소득을 표현하는 가처분 소득(disposable income)과 구분되는 개념이다.

1. 세계적인 불평등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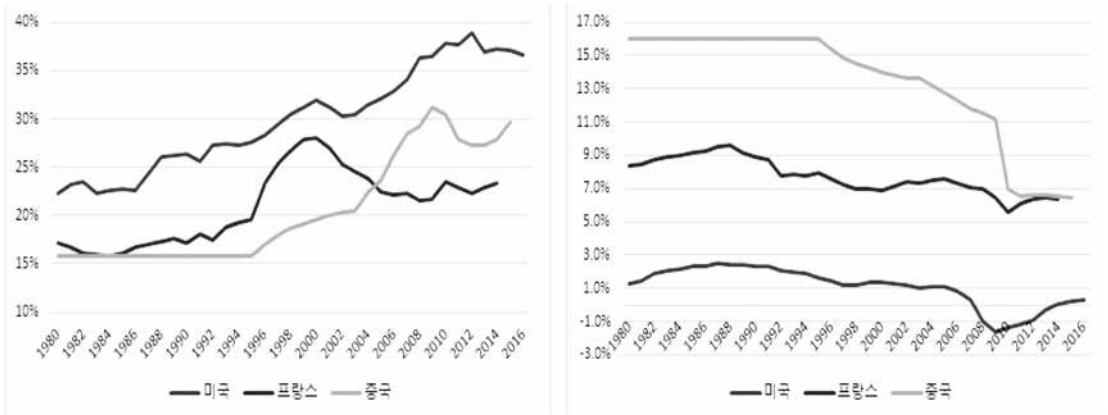
Figure 1. Pre-tax National Income Share of Top 10% (Left) and Bottom 50% (Right)



(Source) World Inequality Database

우선 소득의 불평등을 보면 그 양상이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유럽, 북미, 아시아 등 세계적 현상임을 알 수 있다. Figure 1은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상위 10%와 하위 50%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세계 기준으로 보면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북미와 아시아(중동 제외)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하위 50%의 비중은 2000년대 들어 하락하는 양상이 뚜렷하다. 구체적으로 세계 기준 하위 5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미만에 불과하며 유럽을 제외한 북미·아시아 등의 지역에서는 그마저도 하락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소득 상위계층이 하위계층에 비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2. Top 1% Net Personal Wealth Share (Left) and Bottom 50% Share (R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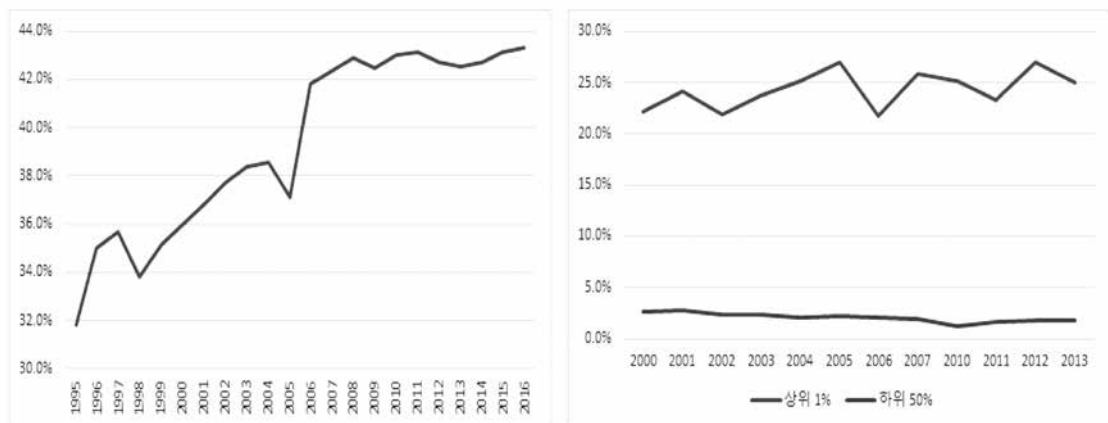
(Source) World Inequality Database

순자산을 기준으로 측정한 부의 불평등 양상은 앞서 살펴본 소득의 경우보다 정도가 더 심각하다. 다만 자료가 일부 국가에 한정되어 있어 대륙별 혹은 세계 기준으로는 자료를 수집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음을 밝혀둔다. 대륙별로 북미에서 미국을, 아시아에서는 중국을, 유럽에서는 프랑스를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하였고 Figure 2가 그 결과를 보여준다. Figure 2에 따르면 3개 국가에서 모두 순자산 기준 상위 1%가 전체 순자산의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미국의 경우 상위 1%의 비중이 35%를 상회하고 있다. 반면, 하위 50%의 경우 순자산의 비중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개 국가에서 모두 하락하여 10% 미만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앞서 상위 1%의 비중이 독보적이었던 미국의 경우 하위 50%의 비중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동안 마이너스 점유율을 보이기까지 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대침체(Great Recession)’로 불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하위 50%의 비중이 급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경제적 위기는 하위계층에 훨씬 큰 타격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한국의 불평등 추세

『세계 불평등 데이터베이스(World Inequality Database)』 자료의 소득과 부를 기준으로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 양상을 분석해 보면 세계적인 추세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소득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공개하는 세금 산정 기준 소득(fiscal income)을 활용하였고 부에 대한 자료로는 앞서 분석한 것처럼 순자산 관련 자료를 활용하였다. 소득 자료는 1995년, 순자산은 2000년 이후로만 공개되어 있는데 순자산의 경우 2007, 2008년 자료가 누락된 한계가 있었다.

Figure 3. Top 10% Fiscal Income Share (Left) and Net Personal Wealth Shares (Right)



(Source) World Inequality Database

『세계 불평등 데이터베이스(World Inequality Database)』에 공개된 자료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소득 상위 10%의 점유율은 199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왔는데 2006년에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한 후 42~44%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유럽을 제외한 북미, 아시아(중동 제외)의 평균적인 수준과 유사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순자산의 경우에는 상위 1%가 국가 전체의 1/4 가까이 점유하고 있는데 반해 하위 50%는 점유율이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이러한 양극화의 흐름이 더 견고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순자산 가치 상위 1%의 비중을 보면 미국과 중국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프랑스와 유사한 상황이지만 하위 50%의 비중을 보면 프랑스와 중국보다 낮은 상황이다.

3. 불평등 심화에 대한 대처방안과 한계

근래 경제학계에서도 경제적 불평등 확대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처방안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다. 그 가운데 주목할 만한 주장은 기술의 변화·발전에 대해 교육의 변화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다(Goldin and Katz, 2008). 정보산업(Information Technology) 등 고도의 지적 역량과 기술이 필요한 산업영역이 확대되고 글로벌 경쟁은 격화되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교육 시스템 변화는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전반적인 소득 격차가 커졌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진단의 연장선에서 보면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려면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교육체계의 개선만으로 경제적 불평등 확대 문제를 해소하기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교육 시스템이 경제 여건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문제 인식은 미국이 유럽보다 소득 격차가 확연히 큰 이유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미국의 교육 시스템이 유럽과 비교해서 현저히 뒤처진다고나 유럽의 첨단 기술 수준이 미국 보다 현저히 뒤처진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경제적 양극화는 노동소득에 대한 평등 관념, 세제(tax policy) 등 사회적 규범에 기인하는 측면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Piketty, 2017; Piketty and Saez, 2014). 이러한 주장은 미국과 유럽의 차이를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평등한 분배를 달성하기보다는 경제적 유인구조(incentive mechanism)에 기반한 생산성 향상과 부의 증진에 초점을 맞춘 미국이 유럽보다 경제적 양극화가 심각한 양상임은 이미 살펴본 바 있다. 결과적으로 교육 시스템의 혁신과 함께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사회규범의 변화를 적극 추진한다면 경제적 불평등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 기대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개선책만으로 경제적 불평등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되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우선 국가 차원의 교육 시스템을 혁신하고 이를 공교육 시스템에 접목하는 것은 단순한 작업이 아니다. 상당한 연구와 재정적 뒷받침은 기본이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사회적 협의를 거쳐야 한다. 지지기반을 넓혀 선거에서 우월한 득표를 원하는 정

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이러한 과정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란 쉽지 않다. 그나마 교육 시스템에 대한 개선은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사회규범의 변화에 비한다면 오히려 수월한 일이다. 세제 개선 등을 통한 분배구조 개선을 추진하려면 첨예한 사회적 갈등을 감수해야 하며 사회 전반의 합의된 개선안을 도출하기도 어렵다. 그나마 그러한 개선책이 기초적인 수준에서 제도화되더라도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사실 경제적 불평등의 확대는 근래 발생한 새로운 문제는 아니다. 인류사에서 불평등의 문제는 상존해 왔는데 성경을 통해 신·구약시대에도 부의 양극화 문제가 존재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어떤 시대라 하더라도 경제 주체들이 무절제한 탐욕을 충족하기 위해 생산증대에 몰입하다 보면 과도하게 경제적 잉여를 축적하게 되면서 이웃의 궁핍에는 둔감하게 되어 생산성 증대와는 별개로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권력층에 부가 집중될 경우 제도적 개선조차 쉽지 않아 경제적 양극화는 고착화되고 그 정도가 점차 악화될 개연성이 있다. 이처럼 무한 증식하는 인간의 탐욕은 부의 양극화를 불러오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바로 이러한 탐욕을 상당히 경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시 10:3, 78:18, 119:36; 사 56:11; 렘 6:13, 22:17; 막 7:22; 눅 11:39; 롬 1:29; 고전 6:10).

그렇다면 성경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현실적인 대안을 고민해 볼 수는 없을까? 양극화 문제로 고민하는 현 상황에서 성경에서는 무한 증식하는 인간의 탐욕에 대해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시의적절한 작업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성경 문헌 중에서도 구약성경 신앙관의 정수라 할 수 있는 토라에서는 어떠한 경제관을 제시하고 있으며 토라가 보여주는 대안적 사회의 모습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III. 토라의 관점에서 본 경제관

토라의 경제관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다양한 성경 문헌 중에서 토라를 분석대상으로 삼은 이유를 밝히고자 한다.³ 구약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과정을 다양한 관점에서 표현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는 공간적 실체를 가리키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 자체를 의미한다(김세운 외, 2012). 구약성경 속에는 하나님 나라 구현의 목적과 방향성, 즉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식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구현되는지 잘 드러나 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18

3) 토라는 율법을 포함하는 동시에 다양한 시대에 기원한 자료들과 다양한 삶의 자리를 가진 문서들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다(김희권, 2017). 출애굽 시기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지침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했던 사건들에 대한 신앙고백이기도 하고, 율법에 기초한 나라 건설에 실패하고 바벨론 유수를 거쳐 바벨론 귀환 세대가 그렸던 이상사회를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이는 선지서를 거쳐 신약성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석되고 실현되는 모습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토라는 성경 전체로 보더라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장 19절에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 관계를 맺으신 이유에 대해 “여호와와의 도를 지켜 의(츠다카)와 공도(미슈파트)를 행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뚜렷이 밝히고 있다. 아울러 출애굽기 19장 5, 6절에서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히브리 민족이 자유민으로 해방의 은혜를 누리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고이 카도쉬)이 되리라.” 이 두 구절은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중요한 배경, 그 언약이 확장되어 출애굽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형성해 나갈 국가의 이상을 제시하고 있기에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대표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하겠다. 그 두 구절에서 표현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일상의 지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시한 것이 토라이기 때문에, 토라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탐구해 봄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이상적 경제관 또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1. 하나님 나라 구현의 목적

하나님 나라 구현의 목적은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예표함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현실 속에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관점에서 경제영역을 포함한 전체 사회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 준다. 그러한 이유로 이 글에서는 하나님 나라 구현의 목적을 먼저 살펴본 후 그 지침이라 할만한 토라 속에 나타난 경제관을 설명하려 한다. 우선 하나님 나라 구현의 목적으로 약속한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라’라는 측면과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 구현의 목적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자.

(1) 의(츠다카)와 공도(미슈파트)를 행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을 때, 과연 의와 공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의’는 히브리어로는 ‘츠다카’이고, 영어로 번역할 때는 통상 ‘righteousness’를 사용한다. 히브리어 ‘츠다카’는 관계에 기초한 개념으로, 하나님과 인간 간에 올바른 관계(믿음과 순종), 그리고 인간과 인간 간에 올바른 관계(공휼과 자비)를 포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김희권, 2017). ‘츠다카’가 관계적인 개념이라면 ‘공도’로 번역된 히브리어 ‘미슈파트’는 법적인 사회질서와 연관된 개념이다(김희권, 2017). 구체적으로 법, 재판, 규례 혹은 심판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의미의 영역을 포괄한다. ‘츠다카’와 ‘미슈파트’는 구약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함께 사용되는데 아마도 ‘츠다카’가 ‘미슈파트’의 필요조건임을 은연중에 강조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간에, 인간과 인간 간에 온전한 관계가 형성되고 그러한 관계 위에서 사회적 질서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 나라의 건설 목적이라 할 수 있겠다.

(2)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고이 카도쉬)

하나님 나라의 구현 목적을 설명하는 또 다른 용어들이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 히브리어로는 ‘고이 카도쉬’라 할 수 있다. ‘고이’는 영어로 ‘nation’, ‘카도쉬’는 거룩함을 의미하는 ‘holy’로 주로 번역된다. 즉, ‘고이 카도쉬’는 거룩한 백성(민족) 또는 거룩한 나라를 의미한다. 먼저 제사장 나라의 의미부터 짚어보자. 제사장은 본래 거룩한 하나님과 죄성(罪性)을 지닌 인간 간에 속죄, 예배 등의 의식을 집전하기 위한 중재 역할을 감당한다. 그러한 제사장의 역할을 나라 혹은 백성의 수준으로 확대해 보면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 나라,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에 대해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스라엘) 또한 거룩하길 바라시며 이에 대한 지침서로 율법을 제시하셨다.

‘거룩’의 의미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 보자.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거룩’의 히브리 원어는 ‘카도쉬’이다. ‘카도쉬’는 직역하면 ‘다름(otherness)’이다.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주위 다른 나라들과의 구별됨(distinctiveness)으로, 즉 속된(secular) 것으로부터의 구별됨이라 할 수 있다(Levine, 2003). 출애굽 당시 가나안이 심판을 받은 주된 원인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저버리고 그 땅을 타락시켜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반하는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반면 이집트의 노예였던 히브리 민족은 가나안 거주민들에 대한 심판의 대리자이자 그 땅에서 살아갈 거룩한 민족으로 거듭나기 위해 새로운 삶의 기준이자 통치의 근간으로서 율법이 필요했다. 즉, 율법 준수를 통해 히브리 민족은 파라오의 노예로 살면서 익숙했던 이집트 문화를 탈피하고 가나안 지역의 토착 문화와도 구별되는 거룩을 실현해 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앞서 기술한 ‘의’와 ‘공도’라는 가치와 ‘거룩’이라는 개념을 연관지어 보면 ‘의’와 ‘공도’를 실현하는 나라를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건설하여 주위 다른 나라들에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하나님 나라 구현의 주된 목적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러한 관점은 앞으로 살펴볼 성경적 경제관에서 주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다.

2. 토라 속에 나타난 경제관

거룩한 나라, ‘고이 카도쉬’의 관점에서 다른 나라와 구별된 하나님 나라가 갖추어야 할 제의적, 사회·문화적 율법 조항들이 많지만, 본문에서는 특히 경제관과 연관된 조항에 초점을 맞추어 성경적 경제관을 논의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 경제관을 잘 보여주는 조항인 안식일과 희년 준수, 그리고 경제적 약자층을 위한 배려 조항을 중심으로 성경적 경제관의 핵심 가치들을 살펴보자.

(1) 안식일 조항

안식일 준수와 관련된 율법 조항은 ‘토라’를 비롯해 성서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만큼 안식일 준

수는 율법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안식일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적 실현을 추구했던 이스라엘을 근동 다른 국가들과 구별할 수 있는 주요한 지표였다. 브루그만(Brueggemann, 2014)은 안식일을 이집트와 여타 가나안 국가들과 구별되는 요소를 넘어 당대 사회경제체제에 저항하는 안티테제로 파악한다.

그렇다면 어떤 측면에서 안식일이 다른 나라와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하는 지표로, 심지어 안티테제라고까지 표현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보낸 400년 가까운 시간은 파라오 체제로 대표되는 착취 구조 속에서의 삶이었다. 구체적으로 지배자인 파라오를 위한 건축, 토목 노역 등으로 씁 없는 노예의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해 노예 해방 이후 가나안에서의 정착 생활은 농경사회의 풍요로움에 젖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잇고 가나안 토착 문화에 동화되어 가는 삶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두 시기 사이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그 핵심 조항으로 안식일 준수를 명하셨다. 안식일 준수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지배자(파라오)의 끝없는 생산 요구에 부응하는 노예의 삶을 벗어나되 가나안의 풍요문화(바알과 아세라로 대표되는 토착 우상)에 포획되어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게끔 하는 조항으로 봐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더욱이 안식일 준수의 대상은 종이나 가축을 아우르는 경제적 생산과 관련된 모든 주체를 포함하는 규범이다. 따라서 안식일은 물질적 욕구의 무한 증식, 탐욕과 불안으로 대표되는 이집트 및 가나안 문화에 저항하는 구별됨, 곧 거룩의 실천이 되는 셈이다.

안식일은 경제적 생산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와도 연결이 된다. 헤셀(Heschel, 1955)은 세계가 6일 동안 창조되었지만 창조의 절정은 7일째 되는 안식일이라고 주장하며 6일 동안 생긴 일들은 선하지만 7일째는 되는 날은 거룩하다고 말한다. 즉 안식일은 시간 속의 거룩함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 시간에는 어떠한 생산행위도 하지 않고 생산의 근원적 행위라 할 수 있는 창조를 기억하며 그것을 누리고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날이라 할 수 있다(사 58:13~14). 결국 안식일 준수는 끝없는 소유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생산과 그 생산을 바탕으로 하는 욕구 충족 행위인 소비의 순환구조를 벗어나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쉼을 누리는 삶을 살라는 명령으로 확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하기에 안식일은 소유욕 충족이라는 자기중심의 경제를 탈피하여 하나님과 이웃에게 초점을 둬으로써 관계의 회복을 지향한다. 물질적 생산의 궁극적 주관자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안식일 준수를 통해 확인됨으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지속되는 토대가 마련된다. 또한 안식일 준수가 포로기 혹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신앙고백의 표지로써 제의적 축일로 승화되었다고 보기도 한다(박경철, 2005).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안식일은 이웃과 함께 하나님을 기념함으로써 이웃을 돌아보는 계기로 이해할 수 있다. 더욱이 안식일은 노예에게도 적용되어 경제적 도구로 전락한 인간에게 인간 자체로 쉼을 누리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츠다카’가 안식일 가운데 실현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다.

(2) 희년 조항

성경적 경제관을 잘 드러내는 또 다른 율법 조항은 ‘희년법’이다. 희년법은 안식년의 연장선으로 안식년이 7년 돌아온 다음 해, 즉 50년마다 이스라엘의 사회·경제적 시스템을 되돌려 놓는(reset) 조항을 말한다.

희년이 안식년의 연장선에 있다면 우선 안식년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안식년은 7년마다 토지 경작을 중지하되 휴경 중에 발생하는 노동과 상관없는 생산물은 경제적 약자에게 배분하도록 하고 노예를 해방하는 등의 조치를 실행하는 조항을 말한다. 브루그만(Brueggemann, 2002)은 안식년이 초기 율법에는 노예들을 해방하기 위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출 21:1~11; 신 15:12~18), 나중에는 땅의 휴식과 함께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 존재했던 것으로 해석한다(레 25장; 신 15:1~11).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안식 없는 사회라는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데 안식 없는 사회가 되면 땅에는 결코 쉬이 없고 부채는 탕감되지 않으며 노예는 결코 풀려나지 않으므로써 사회 전반적으로 변화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Brueggemann, 2002). 안식년은 그와 같이 안식 없는 사회가 고착되지 않도록 부채를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 또는 그로 인해 노예로 전락한 이들에게 신분 변화의 가능성을 만들어 주는 전향적 제도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안식년 조항과 관련된 본문인 신명기 15장 4절에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고 강조한다.

안식년 조항에서 더 나아가 희년법은 50년마다 이스라엘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되돌려 놓으라는 것이다. ‘되돌려 놓음’에서 중요한 부분은 토지를 원래 기업으로 받은 소유주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고대 농경사회에서 토지는 생산에 기초가 되는 자본으로 부의 축적을 위한 토대로 봐도 무방하다. 생산이 토지와 노동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고 본다면 희년이 도래할 때마다 토지의 소유권을 되돌린다는 것은 매우 급진적인 율법임이 분명하다. 희년 조항은 레위기 25장에서도 밝히듯이 토지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이며 인간은 단지 그것을 대리하여 경작하는 임무를 지닌다는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한 사상이 전제되고 그것이 공동체적으로 수용되지 않으면 희년 조항을 사회 제도적으로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여기서 50년이라는 기간도 나름의 의미가 있는데 토지를 보유하고 있지 못한 사회적 빈곤층이 3대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하는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고대 사회임에도 경제적 불평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본인의 과실로 인해 기업(토지)을 잃고 가난에 처할 수는 있으나 가난의 악순환으로 인해 후대에까지 신분 상승의 길이 막혀 희망 없는 삶을 영위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사회적 장치가 바로 희년인 셈이다.

아울러 희년 조항에도 안식년의 연장선에서 노예 해방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전쟁에 패하여 포로로 잡혀 온 이방인이 노예 신분이 되기도 했지만, 부채 상황 불능 등 경제적 이유로 인해 동족임에도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는 사례도 있었다(출 21:2; 레 25:39~46; 렘 34:9). 고대 농경사회에서 노예는 재산 혹은 생산수단으로 간주 되었음을 감안하면 토지와 더불어 노예 해방 또한 생산수단의 소유권을 영구적으로 주장할 수 없게끔 하는 제약으로, 생산수단 착취를 통해 무한정 탐욕을 충족하고자 하는 인간 본성에 대한 공동체적 제약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희년 조항이 지닌 과격함에도 그 조항의 이면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풍요에 대한 욕구와 한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고 사유재산제를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애초에 분배받은 기업인 토지에 대한 매매를 전면 금지하지 않고 있으며 부채의 상황이 불가능한 경우 노예로 신분이 강등되는 등 사유재산과 그에 따른 계약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다만 폐쇄적 계급사회로 이끌 수 있는 탐욕의 확장은 사회적으로 무한정 용인하지 않는다. 즉 하나님은 탐욕을 제한하기 위한 수단으로 억압적 규제를 그 백성에게 부과하지 않는다. 오히려 출애굽과 약속의 땅 허락을 통해 하나님의 해방과 자유의 은혜를 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 속에서 희년 조항을 준수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실현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굳건히 서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다시금 강조된다(레 25:54~55).

(3) 경제적 약자층에 대한 배려 조항

‘토라’에는 안식일이나 희년 조항 외에도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경제적 약자층을 대표하는 고아, 과부, 거류민⁴에 대한 경제적 배려가 공동체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한다. 당시에 고아는 자립적인 경제생활이 불가능한 처지에 있었고 과부의 경우 여성의 사회적 처지가 취약한데다 경제 활동을 하기도 어려운 여건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계유지가 쉽지 않았다. 이들과 마찬가지로 거류민 또한 토지의 상속권이 나 소유권이 없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으로 자립하기가 어려운 계층이었다(정중호, 2004). 토라에서는 이들이 기본적인 생존의 문제로 고통받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적 약자층을 위한 사회적 지원책으로는 먼저 안식년에 발생한 생산물을 경제적 약자층이 자유로이 수확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들 수 있다. 안식년이 도래하여 휴경 중이라도 하더라도 농토에서 자생적으로 자란 곡식은 농토의 소유주만의 몫이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 거하는 가난한 자, 즉 고아와 과부, 거류민과 함께 나누어야 할 몫이라는 것이다(출 23:11; 레 25:3~7). 이는 앞서 희년 조항에서 언급한 것처럼 토지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경제관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또한 농산물의 수확과 관련해서도 경제적 취약층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고 있다. 추수 시에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몫을 남겨 두라고 명한다(레 19:9~10, 23:22; 신 24:19~21). 구체적으로 추수할 때 발귀통이는 남겨 두고, 떨어진 이삭이나 열매는 줍지 말며, 감람나무를 떼 후에 가지에 남은 것은 수확하

4) 히브리어 ‘게르’를 번역한 것으로, 성경에서는 나그네, 거류하는 객, 우거하는 자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다. ‘게르’는 원래 자신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 다른 지역에 정착하여 살고자 하는 이주민을 말하며, 당시 기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았다(정중호, 2004).

지 앎으로써 가난한 이들이 그것을 수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매 3년 끝에는 소산의 십분의 일을 성읍에 저축하여 이를 경제적 약자층이 소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신 14:28~29; 신 26:12). 이러한 정책들은 7년마다 도래하는 안식년과 달리 매년 추수기, 매 3년 십일조를 통해 토지나 상속받을 재산이 없는 경제적 취약층이 일상 속에서 경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구약성경에서 경제적 약자층에 대한 배려 조항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그 조항의 실천 여부가 이후 이스라엘 심판의 근거가 되고 있음으로부터 유추해 볼 수 있다(사 1:11~17, 10:1~4; 렘 7:5~7, 22:3~5; 슥 7:9~10; 말 3:5). 다시 말해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난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구별된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판별하는 시금석 역할을 한 셈이다. 경제적 약자층에 대한 공동체의 배려는 안식일과 희년 조항의 연장선에서, 현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구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잣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토라의 경제관과 현대 사회에서 제도화의 한계

지금까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져야 하는 경제관을 안식일과 희년, 그리고 경제적 약자층에 대한 배려 조항을 통해 살펴보았다. 안식일과 희년 조항은 무한한 인간 탐욕에 대한 경계 장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생산수단의 궁극적 소유주가 하나님임을 명시함으로써 경제체계에서 인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있다. 더욱이 희년 조항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의 소유를 이웃과 나눔으로써 경제적 약자층이 가난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장치를 두고 있기도 하다. 아울러 이러한 정신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공동체가 경제적 약자에게 일상 속에서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도록 다양한 지원책 또한 마련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와 같은 일련의 율법을 명령하시기는 하나 인간 본성에 대한 억압이나 규율로 강제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 백성이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억을 바탕으로 타인을 향한 자발적 나눔과 사랑의 실천을 원하심을 알 수 있다.

토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경제관은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한 율법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현대 사회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더욱이 지금보다 단순한 고대의 사회경제 시스템 하에서 형성된 토라의 경제관을 현대 사회의 복잡성과 현실적 제약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문자 그대로 적용하려는 시도는 종교 근본주의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박삼열, 2019; 이진구, 2010).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초점을 맞춘 고대의 규율이라도 사회의 보편적 복리(well-being)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면 토라의 정신을 현대 사회에 실현하기 위한 방편은 고민해 볼 만한 주제라 생각한다. 토라에서 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 대상은 이집트에서 과중한 노역을 담당했던 히브리

노예들로 이집트에서 최하위계층을 대표하는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러한 히브리 민족을 이집트로부터 불러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기존의 가나안 사회와 구별되는 대안적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대안적 공동체는 안식일에서 희년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율법 조항을 준수함으로써 물질적 생산의 극대화보다 공동체 내 관계의 정상화, ‘츠다카’의 구현에 방점을 두고 있었다. 히브리 민족이 가나안에서 농경사회를 형성하게 되면 기존의 가나안 문명처럼 경제적 불평등 현상이 나타날 것이 충분히 예상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율법 조항이 필요했을 것이다.

무엇보다 자력으로 본인의 경제적 상황을 벗어나기 힘든 극빈층에 대한 공동체적 관심과 사회적 배려는 주목할 만하다. 경제적 극빈층은 소위 ‘빈곤의 덫(poverty trap)’⁵으로 인해 인간의 보편적 존엄성을 훼손당하며 삶 속에서 긍정적 변화를 바라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기 쉽다(Banerjee and Duflo, 2012). 이러한 사람들은 경제체계에서 요구하는 생산능력이 미비하여 생산의 현장에서 배제되기 쉬우며 그로 인해 자녀 혹은 그 후대에 이르기까지 빈곤의 악순환⁵이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토라에서는 바로 당대의 경제적 극빈층인 고아, 과부, 거류민에 대한 보호를 여러 차례 일관되게 관심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대 경제체계에서도 토라의 경제관이 담고 있는 율법의 취지는 충분히 의의를 지닌다. 여전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존재하는 불평등을 줄이고 공동체내 관계의 정상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노예, 고아와 과부, 그리고 거류민으로 대표되는 취약계층을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부터 고민해야 할 것이다. 현대 경제학에서 이러한 고민의 접점에 있는 경제학자가 바로 센이다. 센은 현대 사회에서 빈곤층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다음 장에서는 빈곤과 관련된 센의 사상을 살펴보고 이를 토라의 경제관과 연관지어 봄으로써 토라의 경제관을 기존 경제학의 논의로 확장하는 첫 단추를 끼워 보고자 한다.

IV. 센의 관점과 토라의 경제관

센은 공리주의적인 관점(utilitarianism)에 경도된 주류 경제학 사상체계를 비판해 온 대표적인 학자이다. 그는 다른 모든 것을 배제하고 자기 이익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것이 유일하게 합리적이어야 하는지, 우리가 가치를 부여하고 목표로 삼고자 하는 비이기적 목적(non-self-intereseted goals)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비합리적인지 질문을 던진다(Sen, 1988). 이러한 비판을 기반으로 그는 실증경제학이 주류인 경제학계에 자유, 정의 등 윤리학과 관련된 문제를 심도 있게 제기함으로써 규범경제학의 필요성을

5) 낮은 소득 수준은 자녀들에 대한 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자녀들도 고소득 직종에 종사하기 힘든 상황으로 연결되기 쉽다. 결국 빈곤의 악순환이 형성될 개연성이 높다.

다시금 환기시켰다. 그러한 문제의식의 바탕에서 센은 새로운 빈곤 개념을 제시한다.⁶

1. 센의 빈곤 개념

센의 빈곤에 대한 관점은 사회적 선택(social choice)과 관련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직면하는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사회 전체의 빈곤을 어떻게 측정하는가의 질문에서 비롯된다(Sen, 1999). 센은 빈곤을 낮은 소득 수준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렇다 하더라도 사회 전체의 빈곤 수준을 단순히 적정 소득 이하의 비중으로 측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질문을 던진다.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센은 빈곤의 문제가 단순히 소득이 높고 낮은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얻기 위해 요구되는 기본적인 역량(capabilities)의 지속적인 상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Sen, 1976).

센의 빈곤 개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자. 역량을 구체화하기 위해 센은 ‘기능(functioning)’이라는 개념을 설정한다. 여기서 기능은 삶의 특정한 상태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충분히 영양공급이 이루어진 상태 혹은 그렇지 못한 상태, 조기 사망 위험에 크게 노출된 상태 혹은 그렇지 않은 상태 등이다. 개인의 전반적인 삶의 상황은 그러한 기능의 벡터(vector)로 표현할 수 있으며 타인과 비교도 가능하다. 실현 가능한 기능 벡터들의 집합(the set of feasible vectors)이 곧 역량의 집합(capability set)이 되는데 이는 어떤 개인에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열려있는지 표현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Sugden, 1993). 즉 개인에게 주어진 역량(capabilities)은 보다 고양된 삶의 상태(기능)를 취득하기 위한 기회라고 말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장애인의 경우 건강한 개인에 비해 여러 기능들의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고 이는 역량들에 있어 차이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센에 의한 빈곤의 정의, 즉 기본적인 역량의 지속적인 상실은 현재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의미를 넘어 기능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형성한 경우를 말한다. 선천적인 신체적 결함이나 사회 시스템의 문제 때문에 낮은 수준의 기능들을 보유한 사람이 있다면 인간으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삶으로 내몰릴 수 있다.⁷ 또한 역량의 상실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빈곤은 공동체 속에서의 상대적 개념이다. 즉 소득의 상대적 높고 낮음이나 삶에 필수적인 자원의 소유 여부를 넘어 그러한 자원을 삶에서 향유할 수 있는 역량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따른 상호 간의 차이

6) 빈곤 개념 외에도 센은 상대적 관점에서 역량이라는 개념을 통해 빈곤을 정의함으로써 대안적 빈곤 지수(poverty index)를 제시한 바 있고(Zheng, 2017; Shorrocks, 1995; Sen, 1976), 역량과 기능, 빈곤 등의 관점을 후생경제학의 사회선택이론(Social Choice Theory)까지 확장하여 정의, 사회후생, 복지 등에 대한 새로운 연구 흐름을 만들어냈다(Yamamori, 2017; Sen, 2011). 본 연구에서는 토라의 경제관과 연결점을 가지면서도 센의 여러 성과에서 공유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다루고자 하였기 때문에 빈곤 개념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7) 센은 역량의 차이를 가져오는 원인을 크게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분류한 바 있다(Sen, 1999): (1) 개인적인 특이성(personal heterogeneities, 예: 질병에 취약한 체질); (2) 환경의 다양성(environmental diversities, 예: 홍수가 잦은 지역); (3) 사회 풍토의 변화(variations in social climate, 예: 범죄 급증); (4) 특정 사회의 관습적인 소비패턴과 관련된 상대적인 박탈감의 차이(differences in relative deprivation connected with customary patterns of consumption in particular societies, 예: 부유한 사회에서 상대적 빈곤).

(interpersonal differences)를 포괄한다. 결론적으로 센의 관점으로 보자면 단순히 소득이나 부의 양적인 차이만을 가지고 빈곤의 정도를 가늠할 수 없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2. 센의 빈곤에 대한 관점과 토라의 경제관

센의 빈곤 개념은 단순히 물질적 생산의 가치만으로 빈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호 관계 속에서 개인의 역량 상실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토라의 경제관과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토라의 경제관은 물질적 생산의 극대화보다는 공동체 속에서 상호 관계의 정상화에 더 큰 비중을 둔다는 것은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사회경제적 ‘되돌려 놓음’은 결과적으로 지속적 역량 상실에 직면한 경제적 약자층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센은 - 토라에서 언급한 경제적 약자층은 아니지만 -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Sen, 2010).

개발도상국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은 주로 소득의 측면에서 빈곤층 중에서도 가장 가난하지만, 평범한 삶을 살고 장애를 완화하기 위해 돈과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득의 필요는 장애가 없는 사람들보다 더 크다. ‘소득핸디캡’이라 불릴 수 있는 소득능력의 손상은 ‘변환핸디캡’-바로 장애 때문에 소득과 자원을 좋은 생활로 변환하는데 겪는 곤란-의 영향에 의해 강화되고 크게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정의의 아이디어 (The Idea of Justice)』, p. 291)

센은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을 예로 들며 이들이 공동체의 다른 이들보다 더욱 소득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는데, 여기서 장애인인 토라에서 경제적 약자층을 대표하는 노예, 고아와 과부, 거류민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기업으로 부여받은 토지를 상실하고 노예로 전락한 사람들, 경제적 자립 능력을 상실한 고아와 과부, 경제적 기반 없이 떠도는 거류민 등이 바로 그들이다. 그들은 단순히 소득이나 부를 갖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 누려야 할 기능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이었다. 노예는 타인의 재산과 같이 취급되어 가족이나 다를 바 없는 매우 낮은 수준의 기능을 가진 존재라 할 수 있고 거류민도 토지와 같은 경제적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노예와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성인 남성에게 소득 창출 능력이 집중된 당시에 고아와 과부는 ‘소득 핸디캡’을 가진 존재이자 사회적 활동도 쉽지 않아 소득이 있더라도 이를 좋은 생활로 변환하기 쉽지 않은 ‘변환핸디캡’도 가진 존재라 할 수 있다. 즉 센의 예시에서 장애인들과 토라에서 언급하는 노예, 고아와 과부, 거류민은 센의 관점에서 빈곤의 특징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센이 제시하는 빈곤에 대한 관점과 토라에서 관심을 가지는 사회적 약자층의 문제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토라의 경제관은 센이 정립한 빈곤 개념을 점점으로 하

여 규범경제학이 다룰 수 있는 시의성 있는 주제로 심화·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⁸ 현대의 빈곤층에 대한 구체적인 설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안식일로부터 희년, 경제적 약자층에 대한 배려에 이르는 토라 조항의 현대적 의미를 재구성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토라의 경제관이 불평등 완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생산적인 논의가 시작되리라 생각한다.

V. 결론

지금까지 토라의 관점에서 본 경제관이 현대 사회의 불평등 심화 문제에 대한 비판으로 여전히 의미가 있으며 셴의 관점을 연결고리로 하여 불평등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처 차원에서도 시사점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안식일, 희년, 그리고 경제적 약자층에 대한 배려 조항에 집약되어 있는 토라의 경제관은 사회의 상호관계 속에서 지속적 역량 상실에 직면한 이들, 즉 노예, 고아와 과부, 거류민으로 지칭되는 경제적 약자층이 논의의 중심이며 바로 이들이 셴이 주장한 빈곤 개념의 범주에 해당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토라의 경제관을 현대 경제학의 개념과 연관지어 현대 사회의 양극화에 대한 분석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고용과 소득에 필요한 역량의 지속적인 상실이라는 관점에서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 시대의 노예, 고아와 과부, 거류민을 찾아 토라가 추구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해야 할지를 논의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라 생각한다.

본 논문은 토라의 경제관과 셴의 관점을 연결하면서 몇 가지 한계를 노정하였다. 첫째, 셴의 관점을 빈곤에 대한 개념 설정에 국한함으로써 자유, 평등, 정의에 대한 그의 폭넓은 이론체계를 담아내지 못하였다. 물론 본고에서 다룬 셴의 빈곤관은 그의 사상에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기능과 역량에 대한 개념이 중심을 이루기 때문에 토라의 경제관과 셴의 사상간 주된 연결고리는 적절히 전달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셴이 제공한 풍부한 사유와 성경적 경제관의 연결 가능성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 둘째, 토라의 경제관과 셴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 시대의 경제적 약자층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어떻게 형성할지에 대한 논의까지는 담아내지 못했다. 역량의 지속적 상실이라는 기준을 한국 사회에 어떻게 적용하고 구체화해야 할지, 그 바탕 위에서 어떻게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것인가 하는 고민은 반드시 뒤따라야 할 작업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일은 다음 연구자를 위해 남겨 두고자 한다.

2007년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불어닥친 대침체(Great Recession)는 금융시장에서

8) 본 논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지만 셴이 후생경제학(welfare economics), 특히 사회 선택이론에서 발전시킨 다양한 논의를, 예를 들자면 자유, 평등, 정의 등에 대하여 토라의 경제관 혹은 성경에서 드러나는 사회경제사상과 연결하여 분석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무절제하게 탐욕을 부추긴 결과와 그 후유증이 어떠한지 보여준 바 있다. 대침체를 가져온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금융시장을 거쳐 부에 대한 욕구에 편승한 결과라는 의견이 다수를 이룬다. 이는 본 연구를 통해 발견한 토라의 경제관과 맥이 닿아 있다.

대침체 이후 경제학계에서도 기존 학설에 대한 재검토가 활발해졌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적 경제관을 센과 같은 관점을 지닌 규범경제학과 잇대어 심도 있는 논의를 생산하는 기회를 찾았으면 한다. 본 연구가 그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곽호철 (2016). 신자유주의의 기독교적 대안: 수정된 기본소득제도. **신학논단**, 83(1), 121-154.
[Kwak, H.C. (2016). A Christian Alternative to Neoliberalism: Reconfigured Basic Income Guarantee. *Theological Forum*, 83(3), 121-154.]
- 김근주 외 (2012). **희년, 한국사회, 하나님나라**. 서울: 홍성사.
[Kim, K.J. et al. (2012). *Jubilee, Korean Society, and Kingdom of God*. Seoul: Hong-Seong-Sa.]
- 김명배 (2012).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한국교회에 끼친 영향에 관한 연구. **현상과인식**, 36(4), 43-68.
[Kim, M.B. (2016). A Study on the Impact of Neo-liberalism to Church of Korea. *The Korean Journal of Humanities and the Social Sciences*, 36(4), 43-68.]
- 김세윤 외 (2012). **하나님 나라 복음**. 서울: 새물결플러스.
[Kim, S.Y. et al. (2012), *The Gospel of the Kingdom of God*. Seoul: New Holy Wave.]
- 김희권 (2017).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읽는 모세오경**. 서울: 복 있는 사람.
[Kim, H.K. (2017), *Pentateuch read via the Theology of Reigning God*. Seoul: The Blessed.]
- 전강수 외 역. (2003). **토지와 경제정의**, Torrey, R.A. (2002). **Biblical Economics**. 서울: 홍성사.
[Chun, K.S. et al. (2003). *Biblical Economics*. Seoul: Hong-Seong-Sa. Tran. Torrey, R.A. (2002). *Biblical Economics*. Bloomington, IN: Xlibris.]
- 박경철 (2005). 안식일의 제의적 의미와 사회정의, **구약논단**, 1(17), 56-77.
[Park, K.C. (2005). The Cultic Meaning of the Sabbath and Social Justice, *Korean Journal of Old Testament Studies*, 1(17), 56-77.]
- 박규태 역 (2015). **안식일은 저항이다**. Brueggemann, W. (2014). **Sabbath as Resistance**. 서울: 복 있는 사람.
[Park, K.T. (2015). *Sabbath as Resistance*. Seoul: The Blessed. Tran. Brueggemann, W. (2014). *Sabbath as Resistance*.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 박삼열 (2019). 종교적 차이와 갈등, 관용과 화해의 가능성, **현상과인식**, 43(1), 41-58.
[Park, S.Y. (2019). A Religious Differences and Conflict, Possibility of Tolerance and Reconciliation. *The Korean Journal of Humanities and the Social Sciences*, 43(1), 41-58.]
- 박순성 역 (2009). **윤리학과 경제학**. Sen, A. (1988). *On Ethics and Economics*. 서울: 한울아카데미.

- [Park, S.S. (2009). On Ethics and Economics. Seoul: Hanul Academy. Tran. Sen, A. (1988). *On Ethics and Economics*. Cambridge, MA: Blackwell Publishers.]
- 박승인 (2015). 신자유주의 시대와 기독교 신학의 과제. **신학논단**, 80(2), 141-169.
- [Park, S.I. (2016). The Task of the Christian Theology in the Era of Neoliberalism. *Theological Forum*, 80(6), 141-169.]
- 박승인 (2019). 신자유주의의 효율성과 효율적 이타주의. **신학논단**, 95(1), 65-97.
- [Park, S.I. (2019).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the Neoliberalism and the Effective Altruism. *Theological Forum*, 95(1), 65-97.]
- 이규원 역 (2019). **정의의 아이디어**. Sen, A. (2010). *The Idea of Justice*. 서울: 지식의 날개.
- [Lee, K.W. (2019). *The Idea of Justice*. Seoul: The Wings of Knowledge. Tran. Sen, A. (2010). *The Idea of Justice*. London: Penguin Books.]
- 이봉석 (2018). 기독교 윤리학에서 본 신자유주의 인간이해와 사회 통합의 가능성 연구: 하이에크의 인간이해를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42, 125-152.
- [Lee, B.S. (2018). A Christian Ethical View on the Neoliberal Understanding of Human Nature and the Possibility of Social Integration: Focusing on Hayek's Understanding of Human Nature, *The Korean Journal of Christian Social Ethics*, 42, 125-152]
- 이진구 (2010). 한국 기독교 근본주의와 종교권력, **기독교사상**, 55-65.
- [Lee, J.K. (2010). Christian Fundamentalism and Religious Power in South Korea, *Christian Thoughts*, 55-56]
- 장윤재 (2005). 광야로 돌아가자 - 신자유주의 무한경쟁 시대에 교회가 본질적으로 회복해야 할 것들, **기독교사상**, 49(10), 50-57.
- [Chang, Y.J. (2005). Come Back to the Wilderness, *Christian Thoughts*, 49(10), 50-57]
- 정중호 (2004).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계층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과학연구**, 23(1), 511-525.
- [Chong, J.H. (2004). A Study on Ger in Ancient Israeli Society, *Korean Journal of Social Science*, 23(1), 511-525.]
- 정중호 (2014). 한국 토지 개혁과 희년 실시 방안, **장신논단**, 46(2), 35-60.
- [Chong, J.H. (2014). Land Reform in Korea and the Jubilee Revival Plan, *Korea Presbyterian Journal of Theology*, 46(2), 35-60.]
- 정진원 역 (2005). **성경이 말하는 땅 - 선물·약속·도전의 장소**. Brueggemann, W. (2002). *The Land - Place as Gift, Promise and Challenge in Biblical Faith*.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Jeong, J.W. (2005). *The Land: Places as Gift, Promise and Challenge in Biblical Faith*. Seoul: CLC. Tran. Brueggemann, W. (2002). *The Land: Places as Gift, Promise and Challenge in Biblical Faith*. (2nd ed.). Minneapolis, MN: Augsburg Fortress.]

조혜신 (2018). 희년법 원리의 제도적 구현 가능성에 관한 小考: 기본소득 제도를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23(3), 263-294.

[Cho, H.S. (2018). The Preliminary Study of the Modern Applicability of Jubilee Law: Focused on Basic Income, *Faith and Scholarship*, 23(3), 263-294.]

Banerjee, A. and Duflo, E. (2012). *Poor Economics: A Radical Rethinking of the Way to Fight Global Poverty*. New York, NY: Public Affaris; Reprint edition.

Goldin, C. and Katz, L. (2008). *The Race Between Technology and Educa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Heschel, A. J. (1955). *God in Search of Man: A Philosophy of Judaism*. New York, NY: Farrar, Straus and Giroux.

Levine, B. A. (2003). *The JPS Torah Commentary: Leviticus*. Philadelphia, PA: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Piketty, T. (2017).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Cambridge, MA: Belknap Press: An Imprint of Harvard University Press; Reprint edition.

Piketty, T. and Saez, E. (2014). Inequality in the long run. *Science*, 344(6186), 838-843.

Sen, A. (1976). Poverty: An ordinal approach to measurement. *Econometrica: Journal of the Econometric Society*, 219-231.

Sen, A. (1992). *Inequality reexamined*.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Paperback edition.

Sen, A. (1999). The possibility of social choice. *American Economic Review*, 89(3), 349-378.

Sen, A. (2011). The Informational Basis of Social Choice. *In Handbook of Social Choice and Welfare* (Vol. 2, pp. 29-46). Elsevier.

Shorrocks, A. F. (1995). Revisiting the Sen poverty index. *Econometrica*, 63(5), 1225-1230.

Sugden, R. (1993). Welfare, Resources, and Capabilities: A Review [Inequality Reexamined].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1(4), 1947-1962.

Yamamori, T. (2019). The Smithian Ontology of 'Relative Poverty': Revisiting the Debate

between Amartya Sen and Peter Townsend. *Journal of Economic Methodology*, 26(1), 70-80.

Zheng, B. (2017). A class of generalized Sen poverty indices. *Economics Letters*, 159, 100-103.

토라의 경제관과 경제학적 함의*

Torah's Economic Perspective and Its Implication of Economics

조규봉 (한동대학교)

논문초록

경제적 불평등이 악화되는 가운데 본 논문에서는 성경적 경제관이 우리가 직면한 경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데 유효한지 살펴보기 위해 토라(Torah)를 중심으로 성경적 경제관을 도출한 후 현대 경제학과의 연결지점을 찾아보았다. 토라의 경제관은 하나님 나라 구현이라는 관점에서 안식일과 희년 준수, 경제적 약자층을 위한 배려를 중심으로 확연히 드러난다. 토라에서 안식일, 희년, 경제적 약자층에 대한 배려를 담은 조항은 무한 증식하는 인간의 탐욕에 대한 경계 장치이자 생산수단의 궁극적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물질적 생산의 극대화보다는 공동체내 상호 관계의 정상화를 추구하고 있다. 공동체내 상호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토라의 경제관은 규범경제학의 주요 주제인 센(A. Sen)의 빈곤 개념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센은 빈곤 개념을 개인의 소득 수준이 낮다는 의미를 넘어 상호 관계 속에서 기본적인 역량의 지속적인 상실로 보았는데 토라의 경제관에서 경제적 약자층을 대표하는 노예, 고아와 과부, 거류민은 센이 정의한 빈곤의 범주에 정확히 해당한다. 이러한 개념적 공유는 불평등이 심화되는 우리 시대에 노예, 고아와 과부, 거류민과 같은 계층은 누구이며 이들에 대해 토라에서 강조하는 사회적 배려와 지원을 어떻게 구현할지 논의하는데 귀중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토라, 규범경제학, 빈곤, 역량